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9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2월 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해 만들어갑시다!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임단협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했고,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무기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뚫고 왔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코로나 19를 넘어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도 총파업 투쟁으로 일부 저지했습니다. 유성지회는 10년의 투쟁으로 노조파괴를 끝장냈습니다. 모두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희망을 만듭시다!

자본과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업장들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터에서 쫓겨날 겁니다. 더 단단히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때만, 나의 고용과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드는 한 해로 만듭시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설 명절에 가족들과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전할 수 있는 설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설 명절 보내시고 이후 투쟁의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